

<b>타이틀</b>	09. 이루리, 출장을 다녀오다
<b>배 경</b>	I화학 기계관리팀
<b>등장인물</b>	이루리: 20대 남 성과장: 30대 후반 남. 기계관리팀 고참 중의 하나 박사장: 건적의뢰한 공업소 사장
<b>시놉시스</b>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이루리의 회사, 이루리는 김과장과 함께 이전할 공장을 가서 기계를 놓기 위해 새로 주문해야 할 장비를 체크하고 수치를 재는 일을 돕기로 한다. 김과장은 이전할 곳의 주소가 나와 있는 짧은 보고서를 이루리에게 보내 이동할 차량을 수배해 놓으라고 지시한다. 이루리는 김과장의 보고서를 통해 이전할 곳의 주소를 파악하고 가능한 회사차량을 찾아 사용하겠다고 보고한다.

이것저것 바쁜 김과장은 차량사용 신청서를 쓰고 있는 이루리를 보고서야 자기가 출장계획서 제출을 깜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곧 출장이라 바로 제출해야 하지만 또 외부 일정으로 나가봐야 되는 김과장은 이전에 제출했던 출장계획서에 대충 손으로 수정해서 이루리에게 주며 출장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이루리는 상사가 손으로 간략하게 써준 출장계획서를 보며 물어 물어 출장계획서를 완성해 제출한다.

출장 전 날, 이루리는 김과장이 알려준 대로 이전할 공장에서 가까운 공업소에 전화를 한다. 공업소에서 이전할 공장으로 나와서 새로 설치해야 할 선반이나 기계 등의 필요한 견적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루리는 출장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고 필요한 견적 명세를 불러주며 확인한다.

출장을 갔다 온 이루리는 공업소에서 내준 임시 견적을 보며 주문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공업소 담당이 손으로 쓴 글씨라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단위는 다 빠져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은 이루리. 김과장이 길이 단위는 mm이고, 무게는 g이고 가격 숫자 뒤로 쪽 그어놓은 선은 천 단위라고 알려 줘서 무사히 주문서를 완성한다.

얼마 후 김과장은 이루리에게 기계 제작 일정이 미루어져 이사 날짜도 미루어졌다며 공고된 이전 안내문을 고치라고 지시한다. 이루리는 게시판에 붙어 있는 이전 공고의 날짜를 수정해 다시 붙여 놓는다.

## 대 본

### #1 타이틀 : 이루리, 출장을 다녀오다.

#### #2 공장 위 사무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정신 없는 사무실. 성과장 자리 옆 벽에 걸린 월별 일정표 앞에 이루리와 성과장이 서 있다. 성과장, 보드마카로 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 치며...

성 (강조하며) 그러니까 이날, 이날은 출장을 가야 하는 거지.  
 루리 (자기 다이어리 체크하며) 2주 후네요. 이동편은 기차로 하나요? 예매할까요?  
 성 아니. 공업소도 들르고, 여기저기 가봐야 하니까 회사 차량으로 이동합시다.  
 루리 (다이어리에 쓰며) 그럼 회사 차량 사용허가를 받아놓겠습니다. 목적지는 '이사할 공장'이라고 쓰면 될까요?  
 성 '이전 예정 공장'이라고 쓰시고요. 목적지는 주소를 넣어야 될 테니까... (자기 책상에 올려져 있던 종이 한 장을 이루리에게 주며) 이거 지난 번 출장보고서. 여기 이사할 공장 주소가 있어요.  
 루리 아, 네.  
 성 아~ 하는 김에 출장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실래요? 이번 주에 결제 나와야 하는데 내가 계속 외부 일정이라.  
 루리 출장계획서요?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나요?  
 성 네. 주요 업무는 '이전할 공장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견적 확인' 이렇게 쓰고... (다이어리에 받아 적는 이루리) 결재라인은 경영지원팀장, 우리 팀장님, 총괄 부장님, 상무님, 이사님인데... 이사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라 전결을 하시려나, 대결을 하시려나. 후결할 필요는 없을 테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결재라인 순서만 안

틀리도록 하시고요.

루리 네.

답하는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춤, 속생각

루리 전결? 후결? 대결? 정말 몰라도 되는 건가?

성 (나가려고 옷 입으며 명심하라는 듯) 공장 이전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계 놓을 위치는 다 제대로 정해진 건지, 새로 주문해야 할 장비는 뭘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니까 출장 가기 전에 미리미리 다 확인합시다.

루리 네. 그럼 팀 공유 폴더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성 그럼 좋죠. 나도 필요할 때마다 항목 업데이트하고 체크할게요.

루리 네. (성과장 나가면 손가락 꼽으며) 체크해야 될 게 차량도 있고, 측정 장비도 있고, 필요한 업체 리스트랑 연락처, 배치계획서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안 되겠다. 너무 많으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정리한 후에 분류하자.

엑셀창을 열어놓고 작업하는 이루리. 이루리가 만드는 체크리스트가 화면에 보여진다.

### #3 사무실 이루리 자리

성과장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성하는 이루리. 화면 반쪽에 차량사용 신청서 나오고...

루리 차량사용 신청서는 간단하네.

화면 반쪽에 성과장이 준 출장 보고서 싹 나오면 주소에 형광펜 그어지고

루리 이전할 곳 주소가 여기 있구나. (키보드 치며) 결재라인 확인하고 차량 신청 끝.

화면 반쪽에 출장계획서 양식이 딱 나오면 한숨 쉬는 이루리

루리 (다이러리 보며) 하아... 일단 출장 당일 일정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해 보자.

루리가 컴퓨터 메모장에 출장 당일 일정을 정리하는 모습. 화면에 그날 일정이 텍스트로 보여진다.

루리 정리하고 나니 그날 뭘 할지 한눈에 보이네. 이제 성과장님께서 알려주신 주요업무 내용 넣고 출장계획서를 만들 수 있겠다. (전자결재 문서양식 출장계획서임을 다시 확인하며) 이 문서양식 맞지? 결재라인도 확인하고... (작업하는 모습)

### #3 회의실(출장 전날)

얼마 후 출장준비 체크리스트 보며 확인하고 있는 성과장과 이루리

루리 차량 사용이랑 출장계획서 모두 결재 났습니다.

성 (서류 짚욱 확인하며) 오케이.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되겠네. 아, 내일 견적 요청할 공업소에 전화해서 한 번 공장까지 와줄 수 없겠냐고, 요청 한 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루리 아, 네. 연락처는...



성 (수첩에서 명함 찾아서 주며) 여기. 나랑 몇 번 통화했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 대면 알 거예요. (일어나며) 그럼 내일 봅시다.  
루리 네. (꾸벅 인사하고)

*성과장 나가면 명함 보고 고민하는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업무요청인데... 어떻게 말해야 선뜻 공장까지 오겠다고 할까? 친절하게? 능숙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야 하나?

명함을 보면서 회의실 전화로 전화하는 이루리

박사장 (시끄러운 장소에서 전화 받으며) 여보세요!

루리 아 안녕하세요! |화학 기계관리팀 이루리라고 합니다.

박사장 누구요?

루리 (더 크게) |화학이요!

박사장 (못 알아들은 듯) 왜요?

루리 (소심해져서 쭉그러드는 목소리로) 저... 내일 견적 때문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박사장 (어딘지 기억났다.) 네? 아! |화학!

루리 (잘 들리게 큰 소리로) 네! 내일 혹시 저희 새 공장에 와주실 수는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서요! 직접 보시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없는 건 무엇인지 더 정확히 판단하고 견적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장 (쿨하게) 아, 그리로 오라고요?! 알았어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루리 (반갑게) 1시 이후에 저희는 쪽 공장에 있을 겁니다.

박사장 그럼 한 3시쯤 가면 돼요?

루리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끊으며 안도) 휴우~

#### #4 사무실, 저녁

다음 날. 파김치가 되어 사무실로 복귀하는 성과장과 이루리. 성과장은 팀장님과 심각하게 통화 중이다. 성과장이 통화하는 사이에 카메라며 장비가 든 큰 가방 내려놓는 이루리

성 (심각하게 손 휘휘 내저으며) 절대 그 날짜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그거 수리 다 하고 들어가야지 기계 난리 납니다... 예, 오늘 공업소 견적은 받았으니까 주문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바쁘시면 바로 올라갈까요? 네, 팀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 끊고 이루리에게) 이루리씨, 나 팀장님한테 바로 가봐야 하니까 뒷정리 좀.

루리 네.

성 (품에서 견적서 꺼내 주며) 그리고 이거 아까 공장에서 받은 견적인데, 결재 올려야 하니까 파일로 작성해서 공유 좀 해주세요. 이 견적서는 스캔해서 참고로 붙이고.

루리 네.

성과장한테 무심코 거래명세표 받은 이루리. 성과장 나간 뒤에 그걸 보고 입이 떠억 벌어진다.

*암호에 가까운 손글씨로 써진 거래명세표와, 눈이 휘둥그레진 이루리 얼굴 교차되어 나오며 이루리 생각*

루리 (황당해서) 대체 어떻게 알아 보지?

그때 다시 후다닥 뛰어 들어오는 성과장

성 (루리 손에 있는 거래명세표 손으로 가리키며) 숫자 뒤에 짝은 천 단위라는 뜻. 규격은 다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요.  
루리 아아~~ 네... 해보겠습니다.  
성 오케이. (다시 후다닥 사라진다.)

손글씨를 보며 위의 참고 이미지처럼 정리하는 이루리. 하지만 규격에서 역시 막힌다.

루리 (거래명세표에 헛갈리는 손글씨 50ea/pk? 10장/pallet? 를 보고 가우똥) 500이에이, 피케이(PK)? 피아이엘(PIL)? (가우똥) 10장, 팔렛(pallet)? 이건 뭐지? 사장님께 문의 드려볼까? (시계 보니 8시) 아, 업무 시간이 지났네. 물어보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네. (가만히 명세표 들여다 보다가) 혹시 과장님은 아실까?

잠시 후, 이루리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과장이 들어온다.

성 어이구~ 견적은 다 정리했어요?  
루리 단위가 다 달라서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 (이루리 모니터 보며) 어디 봅시다.  
루리 (아까 문제였던 손글씨 보여주며) 특히 이 글자요... 피케이(PK)인지 피아이엘(PIL)인지...  
성 팩. 피케이, 한 팩이 500개라고요.  
루리 아~ 이건요? 팔렛?  
성 상판 단위 팔렛, 한 팔렛에 10장이라는 말입니다.  
루리 (이해하며) 아아~~  
성 견적은 이렇게 단위당 몇 개인지 표시해 주시면 더 알아보기 쉽죠.  
루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 그리고 공장 이사날짜는 결국 5월로 미뤘습니다.  
루리 다행이네요. 못 미룰까 봐 걱정하셨잖아요.  
성 5월도 촉박하죠~

그때 이루리 눈에 회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공고가 들어온다.  
<화학 매동 공장 이전 날짜 공지 - 3월14일>

루리 어? 그럼 당장 홈페이지 공고부터 고쳐야겠는데요? 제가 고칠까요?  
성 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몰라서요.  
루리 5월 중 이전 계획.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3월로 계획하고 무언가 계획하는 분들 이 빨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성 그죠. 그럼 일단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전 안내문 고치는 이루리. 고쳐진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루리 성과장님, 이전 안내문, 수정했습니다.  
성 잘했습니다. (웃으며)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네요. 늦었지만 얼른 퇴근하세요.  
루리 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듯하게 웃는 이루리